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이 영 분*

양 심 영**

【 국 문 초 록 】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내에서 가족의 변화로 인한 복지적 요구에 대하여 가족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를 임상현장의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모형은 병리적 문제가족적 접근과 달리 일반가족적 접근으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갈등과 긴장의 경향성이 개인 및 가족의 적응양식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간주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가족의 변모과정을 구조, 가치관, 가족생활주기의 역할수행의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게 된 가족내의 적응 및 문제의 양상들이 가족관계-고부 및 친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가족복지서비스가 이루어온 개입들의 발전과정 및 평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시각을 지닌 하나의 생태학적 생활모델로서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가족 환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며 개인과 가족환경 사이의 중개자로서 역할할 뿐 아니라 가족내외 권력관계에서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려는 옹호자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

I. 서언

월렌스키와 르보(1958)는 사회복지의 출현을 산업화의 사회변동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의 한 형태인 가족 사회복지의 발전도 사회의 산업화¹⁾의 과정에 따라 가족에게 새로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강남대학교 강사

1) 산업화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일부 학자들은 근대화 (Modernization)속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다

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진 서구의 수백년에 걸친 산업화 과정을 수십년의 단기간에 이룩한 한국사회는 변화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사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구조와 성격 및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가족의 새로운 문제현상들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한 가족복지의 실천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복지 분야에서 최근 전반적으로 지적되었던 개인보다 가족전체,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 등의 방향전환에의 재검토와 아울러 한국 가족복지의 개입이 사회변동의 현상과 함께 수반되는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수렴하여 발전시켜 왔는가를 탐구하는 역사적 이해와 평가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복지의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한국 가족의 요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 가족복지의 실천개입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가 복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산업사회의 변동에 따라 한국 가족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복지적 수요가 가족복지서비스의 가족관계의 차원에서 어떻게 표출되어 왔는지를 임상현장의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가족복지 서비스의 개입의 과정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 가족의 변화

1. 가족 구조의 변화

산업화는 공업화에 따르는 인구의 재배치로서의 도시화의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는 가족구조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전통사회의 가족구성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확대

른 편에서는 근대화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따라 산업화의 과정을 경제적 생산을 확대시키는 기술변동에 수반되는 공변현상 또는 결과적 변동을 통틀어서, 즉 경제 기술구조상의 변화와 함께 사회심리구조상의 변화를 포함한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를 파악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김경동 외 (1985), 한국사회 한 세대. 서울대 출판부, 7.

가족으로 전제해 왔으나 이보다는 부모가 가계를 계승할 장자 부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이른바 부계적 직계가족제를 이념으로 하였다.²⁾ 이러한 직계가족의 구성형태는 도시화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 표1 > 가족의 세대구성 변화

(단위: %)

지역	연도 구성형태	1960	1970	1980	1990
		전국	1세대 7.5 2세대 64.0 3세대 28.5	6.8 70.0 23.2	14.5 68.5 17.0
시부	1세대 9.3 2세대 71.6 3세대 19.1	9.2 75.4 15.4	15.6 71.4 13.0	19.8 69.4 10.8	
군부	1세대 6.7 2세대 61.0 3세대 32.3	5.0 66.0 29.0	13.0 64.3 22.7	25.5 57.1 17.4	

자료: 경제기획원, 1970, 1980, 1990년도의 인구주택조사 보고

우선 인구조사자료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직계제적 가족구성을 나타내는 3세대 이상의 가족이 1960년에 28.5%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되어 1990년에는 12.5%에 이르렀다. 2세대 가족은 증가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³⁾ 무엇보다 1세대가구의 급증의 비율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무자녀 부부가족비율의 증가(1966년의 4.4%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1990년에는 8.3%를 보임)⁴⁾ 와 독신가구,

- 2) 한국가족의 전통적 모형에 관하여 가부장적 대가족은 유교적 지배계급이 이상적으로 제도화한 일부 상층의 가족형태였고 서민층에서는 평균 가족원 수가 조선시대를 통해 4명을 약간 웃돌 정도로 현저히 작은 편이었다는 실증적으로 주장과 함께 핵가족형태의 모형을 전통적 가족형태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최재석교수의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에 따른 가족형태의 연구와 송한규씨의 이조시대로부터 일제, 대한민국의 시기(1657-1975)에 거친 가구크기의 변화의 추세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최재석, 조선시대의 신분계급과 가족형태, 고대 인문논집, 21집, 1976. 6, p.24. 과 Song Hankyu, Family Changes in Modernizing Korea, ph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 C. 1978, p. 116. 참조. 한편 실증적 연구의 통계상에서는 핵가족적 형태가 큰 비율을 나타내나 이는 직계제 가족이 요구하는 경제적 뒷받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며 이념적 가족제도도 장남위주의 가계전승인 직계가족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3) 2세대 가족은 직계제적 구성 (자녀가 기혼) 혹은 미혼자녀의 핵가족적 구성의 두 형태중 각 연도의 인구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전자는 0.6-1.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후자인 핵가족적 2세대 가족이다.

비혈연가구의 준가족적 형태의 가족구성의 증가가 현대가족의 특징으로 대두되었다.

세대구성의 변화들을 지역간에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농촌에서 큰 폭으로 변화되었다. 즉 3세대 가족의 경우 도시지역의 19.1% 보다 훨씬 높은 농촌의 60년대의 32.3%의 비율은 90년대에 들어와 17.4%로 도시지역의 10.8%에 비해 그 변화속도가 빠르다. 2세대 가족도 빠른 감소의 추세로 90년에는 도시지역보다 12.3%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세대 가족은 60년의 6.7%에서 90년에는 25.5%라는 급상승을 보이므로써 도시지역의 21.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별 분류는 가족의 구성원리인 직계가족적 형태와 핵가족적 형태의 범주를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다 명백히 최홍기(1995) 연구의 구성형태별 가족의 변화의 분류에서 이루어져 있다(최홍기, 1995: 703-706).

< 표2 > 구성형태별 가족의 변화
(단위 %)

연도 구성형태 지역	1966					1980				1990			
	단독 가구	핵 가족	직계 가족	기타친 족가구	비 혈연 가구	단독 가구	핵 가족	직계 가족	비 혈연 가구	단독 가구	핵 가족	직계 가족	비 혈연 가구
전국	2.3	69.7	24.7	2.5	0.7	4.8	76.2	17.6	1.5	9.0	76.2	13.3	1.5
시부	2.8	77.7	16.4	1.6	1.4	4.7	80.1	13.3	1.9	8.6	78.6	11.3	1.6
군부	2.1	65.2	29.4	3.0	0.4	4.9	70.6	23.6	0.9	10.3	69.4	19.2	1.1

자료: 경제기획원, 1970, 1980, 1990년도의 인구주택조사보고

각주: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중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부부와 부부형제자매 가구, 기타 가구를 핵가족적 구성형태로 분류되었다. 2세대 가구중 부부와 양친 가구, 부부와 편부모 가구 및 3세대 가구를 직계가족적 구성형태로 분류되었다. 비혈연 가구와 단독가구는 자료의 분류에 그대로 따른 것이며 1966년 자료에만 있는 '기타의 친족가구'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위의 표가 제시하고 있듯이 진술한 세대별 분류와 유사하게 직계제 가족형태의 감소(24.7%에서 13.3%)와 핵가족적 형태(69.7%에서 76.2%), 독신가구(2.3%에서 9.0%) 및 비혈연가구의 증가(0.7%에서 1.5%)를 보이고 있다. 또한 더욱 세분화된 분류의 결과 핵가족적 형태중 부부가족만의 비율이 66년의 4.4%에서 80년 6.0%, 90년에는 8.3%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촌지역에서도 핵 없는 가족, 독신가구 및 비혈연가구 같은 준가족적 형태가 전체의 24.8%나 되며 핵가족 형태의 69.4% 중 자

4) 경제기획원의 1966년도 인구센서스 와 인구주택조사 보고의 자료.

녀 없는 부부가족이 1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구성형태의 비율변화들은 부자관계보다 부부관계를 중시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세대구성의 단순화는 젊은세대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인한 부부가족의 잔류와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며 농촌지역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50세로서 도시지역의 41.9세보다 높은것도 이러한 해석의 자료로 여겨진다(공세권 외, 1992: 65). 아울러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의 현저한 증가는 직계가족은 해체하나 부부중심의 핵가족 구성에서는 소외되는 과정에서 비롯되며 이들 대부분이 미혼자 또는 배우자를 갖지 않는 자로 이루어 지고 있다. 즉 90년 단독가구주의 13.3%만이 유배우자이고 나머지는 사별 또는 이혼한 성인이거나(39.9%) 미혼자(46.7%)이며, 비혈연 가구의 경우도 11.1%만이 유배우자이고 나머지는 사별 또는 이혼한 자(13.9%)와 미혼자(75.0%)로 구성된 결과에서 알 수 있다(최홍기, 1995: 704-705).

한편 이러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 이외에 산업화는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중 비동거 혹은 분거가족의 출현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에 있어서 공동 거주라는 기본 여건을 만족시키지 못한채 가족관계면에서 기존의 핵가족의 구조에서의 기능수행과 다른 독특한 적응양식을 보여주었다(김태현 · 박숙자, 1992). 비동거 가족의 수효는 1970년대 말 중동 진출로 인한 해외취업, 1980년대 이후 국내 지방산업 육성, 1980년대말 이후의 기업체의 해외지사파견등과 함께 기혼여성의 취업이라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의 결과로 더욱 가속화되어 왔고 그 수가 한국보건사회원의 연구결과 약 28%를 보이고 있으며 이때 주말 부부는 제외된 상태이다(공세권 외, 1990).

위의 가족의 형태들 외에도 최근의 이혼의 증가로 인해 생성되는 편부모 가족,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족등 다양한 가족구조의 모습들은 가족의 정의의 개념의 합의가 어려운 점을 상기시키면서 보편적인 가족의 모델 설정의 사고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현대의 선택적 가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핵가족을 보편적 가족의 모델로 기준하여 정상적인 가족, 비정상인 가족으로 대별한다든지 핵가족의 기능수행방식에 기준하여 결손가정으로 분류함은 가족복지에서의 낙인(stigma)을 조장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현대 한국가족 구조의 다양한 변화 추세는 가족의 구조적 형태와 아울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이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느냐와 함께 조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 한국가족의 구조와 가치관이 미처 못미치는 문화지체현상이 초래되었고 가족자체 내에서도 구조와 가치관간의 불일치(gap)가 존재하게 되었다. 가족의 가치관을 가족내외에서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관계적 표현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할 때 가족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기능 혹은 역할들의 특성의 변화의 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한국가족의 가치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가족의 형태는 직계가족으로부터 핵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부중심의 핵가족적 구성은 혈연에 바탕을 둔 부자관계에서 혼인에 바탕을 두는 부부관계로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관계 중심축의 가족구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가족 기능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집단의 생존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외부사회와의 사회경제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반해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은 가족으로 하여금 생산과 소비의 공동기능에서 생산측면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였다. 사회적인 임금노동의 형태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는 남성, 아버지 혹은 남편에 의해 유지되고 가족의 기능은 '사적 공간', 마이 홈 이데올로기(My Home Ideology)로서의 정서적 휴식처으로 남게되었다(조혜정, 1985: 87-88).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강화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계전승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적 차원으로 바뀌게 하고 혼인 상대자의 선택도 중매에서 연애로 바뀌게 하는등 낭만적 사랑의 '마이 홈(My Home)'의 구축을 개인의 중요한 생활 기반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역할규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내에서 독점적 경제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남성에게 부과되고 여성은 경제 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성원들을 보살피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지속되던 부권(父權)으로부터 부권(夫權)으로 옮겨지는 사회적 성차에 의한 구조변화를 가져온 것이다(신수진, 1998: 78-79).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성역할의 분화는 노동의 가치가 임금으로 환산되는 산업자본주의하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의 역할을 맡는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평등적 부부관계의 이중성을 시사한다. 즉 가사노동의 사회적 평가가 절하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경제활동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가사의 역할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한국 가족내의 부부관계에서

여성들은 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의 관계의 기능중 친족관계는 가치관의 전통적 요소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다른 부분이다. 즉 한국사회가 가구구성상의 기준으로는 핵가족화가 상당히 이뤄진 것이 사실이나 이념상으로는 직계가족이 함께 존재하여 가계를 계승할 장자 가족인 경우에 부모가족과 장자 가족은 서로가 분거하고 있는 가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홍기, 1995: 709). 가족의 범위와 관계에 대하여 1995년의 한 조사(김규원, 1995)에서 중요한 가족관계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형제 자매와의 관계(2.1%)보다 친부모(44.0%), 배우자(43.0%), 자녀(6.5%)와의 보다 수직적 관계가 중시되고 가족의 범위에서의 기준도 “나와 피가 통한 사람”으로서 부계혈연을 지적함에 따라 결국, 현대의 가족 개념은 과거와 큰 변화없이 직계가족적 이념을 가족구성의 주요원리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박부진, 1996: 54).

한국도시사회의 친족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한국가족은 여전히 축소된 범위에서 친족간의 활발한 상호부조가 기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이영인, 1984: 16-22). 친족관계중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전통가족의 ‘효’ 이데올로기는 현대가족이 우애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족관계가 과거의 위계적인 성격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가족부양의 가족책임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서 재강화되어 현존하고 있다.

가족내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아선호의 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아들 선호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족제도가 아들에게만 호주상 속의 권리를 부여하며 아들이 없이는 가족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므로 가족의 존속을 위해서는 아들이 절대로 필요하게 제도화된 것으로서 가족법에 호주상속 및 분가에 관한 민법 984조, 780조 1항, 788조 1항, 797조 등에서 남아를 통한 가계계승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족의 실제생활면에서도 결혼한 만아들이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집안을 대표하는 역할을, 그의 아내는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집안의 풍속을 전수받는 배운다는 의미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집안의 제사준비에서도 딸이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희, 1994: 202).

자녀의 노인부모와의 부양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부부중심의 가족의 특성으로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과 노후의존도가 약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지만 1981년 의 한국 갤럽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

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3: 90-91). 즉 연령에 따른 부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근대화로 인한 위계적 가족질서에서 평등적 가족관계로의 전환의 다른 한편에 한국가족은 전통적 가족관념이나 제도의 유지라는 보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가족은 사회구조의 변화에의 적절한 적응과 함께 가족관계 내에서의 성, 연령, 지역, 계층에 따른 다양한 가치관들의 조화를 통하여 문화적 통합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가족 생활주기의 변화

산업화는 개별 가족들의 삶의 역할 수행 방식들에 있어 변화를 가져 왔다. 가족생활주기란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관계나 역할 기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구하는 가족 발달적 접근(developmental approach)의 한 형태이다(유영수 외 2인, 1993: 45). 가족 주기는 각 시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로서(김영모, 1965) 가족 주기의 각 단계마다 보여지는 상이한 특성들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전이(critical role transition)를 알 수 있고(Aldous, 1978)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예측하게 해 준다(Duvall, 1971). 따라서 생활주기 연구를 통하여 한국가족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를 추이할 수 있다. 학자들이 개발한 가족주기의 모형⁵⁾에 따라 한국 가족의 생활과업 수행의 변모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이기숙, 1993: 118-119). 첫째, 가족주기 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둘째, 결혼에서부터 자녀출산 완료까지의 가족형성 및 확대기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을 저하로 매우 단축되고 있다. 셋째, 자녀출산완료 이후 자녀 결혼이 시작될 때까지의 자녀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하는 가족확대완료기는 점점 길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자녀 결혼 완료 이후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축소완료 및 가족해체기는 길어지고 있다.

이상의 가족주기의 단계별로 나타난 특징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복합적 요소들이 가족내 개인의 삶에 관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결혼

5) 서구의 학자들중 Paul Glick의 가족주기 모형은 자주 인용되는 분석모형으로 그의 핵가족주기의 기본단계들은 형성기(결혼), 확대기(첫아이출생), 확대완료기(막내아이 출산), 축소기(첫아이 집 떠남), 축소완료기(막내 집 떠남), 해체기(부부중 1명 사망)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이 높아지고,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으로 자녀를 적게 가짐으로써 출산간격과 전체 자녀의 양육기간이 짧아졌으며,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가 연장된 결과들이다.

한편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의 현상이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야기될 수 있다. 박혜인(1985)과 유영주(1984)의 연구⁶⁾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각 가족단계의 역할수행과정에서 연령별 차이가 도시와 농촌간에서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추세도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동질적 속성을 말해 줌과 아울러 세대별 격차가 지역별 파급 효과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유영주 외2인, 1993: 56-57).

그런데, 가족주기의 모형자체를 대상이 되는 사회의 환경적 산물로 인식할 때 서구의 가족주기 단계들이 한국의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한국 가족의 생활주기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성과 이에 근거한 모형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의 직계가족적 생활기능의 특성이 서구의 핵가족주기에 근거한 가족주기모형에 제한성을 갖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가족에서는 직계가족적 이념에 근거하여 장남의 경우 결혼과 자녀출산은 새 가족을 창설하기 보다 조상의 가족을 계승해 나간다는 가족의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3세대 직계가족주기 모형을 시

6) 연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연령별 비교 및 cohort 비교가 가능하고,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집락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가족주기의 도시-농촌간의 비교를 참고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유영주 외 2인, 1993, p. 57).

연령별 가족생활분포

가족주기		초혼	첫자녀출산	막내 자녀출산	첫 자녀결혼	막내 자녀결혼	자녀수
연구 나이							
박혜인의 농촌 대상 연구 (1985)	20대	23.1	23.9	26.7	-	-	1.8
	30대	22.7	23.8	28.9	-	-	3.0
	40대	21.8	23.6	32.0	-	-	4.0
	50대	20.2	22.7	35.8	46.3	54.7	4.9
	60대	18.6	23.0	37.9	45.2	60.4	4.8
유영주의 도시 대상 연구 (1984)	20대	24.2	24.8	26.6	-	-	1.5
	30대	24.6	25.8	29.6	-	-	2.5
	40대	23.4	24.9	32.0	45.2	58.7	3.6
	50대	21.4	24.0	34.5	47.5	54.6	4.7
	60대	18.5	21.2	35.0	46.9	58.0	4.7

도하였다.⁷⁾ 아울러 이러한 직계가족적 가족성향과 관련하여 가족주기내의 역할 수행의 과정들에 조부모가 포함되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도 시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가족주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국가족의 특징적 경향은 자녀진수기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유영주, 1987: 124). 이는 한국 가족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가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후에도 물질적, 정서적 독립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한국의 심리문화적 가족환경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자녀진수기는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가족 주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자녀의 독립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 책임을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적 회복기를 의미하여 왔다(Duvall, 1957; Rodgers, 1962; Ruza First-DiLid, 1974; Rollins and Feldman, 1975; 유영주 외, 1990, 재인용: 47-52). 그런데, 한국가족의 주기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다할지라도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경우 취업, 군입대를 하고, 딸인 경우에는 가사를 돌보면서 결혼 전까지 부모와 동거하게 된다. 그리고 막내 자녀를 결혼시키고 독립시킨 후에는 이미 57세 경의 중년기 이후 단계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어, 중년기의 경제적 회복기가 전무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유영주, 1987: 124).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한 유영주(1993)는 한국 가족의 주기의 연구모형을 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로서 가족단계를 구분하는 시도를 꾀하였다.

앞으로 가족주기유형을 통하여 현대의 한국가족의 생활과업 수행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근거한 가족의 생활주기 모형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가족주기의 모형들의 자녀 중심적 발달단계적 구분이 무자녀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III.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적 개입에 관하여 가족복지 전문가들은 공통되어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장애

7) 직계적 가족주기는 형성기(혼인), 제1확장기(첫아이 출산), 제2확장기(막내아이 출산), 제3확장기(장남 혼인), 최대 확장기(장손 출산)으로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전통적인 유형의 가족을 분석할 때 유용할 것이다.

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문제가 발생할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을 위주로 실시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변용찬, 1995; 최성재, 1997; 조홍식 외, 1997; 김양희, 1993).⁸⁾

즉 현행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에 한정되고 있고 국가의 개입시기 및 내용도 사전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것이다. 다행히 고무적인 현상은 그동안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의 이념하에서 사회복지수요의 충족이 원칙적으로 개별 가족이나 개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에 의한 복지'의 차원에 속하여 있음으로써 현재 가족의 자체적 부양, 보호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족복지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정부나 민간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가족을 통한' '가족을 위한' 복지에로의 방향전환이 피하여지고 있는 점이다(김혜란·장경섭,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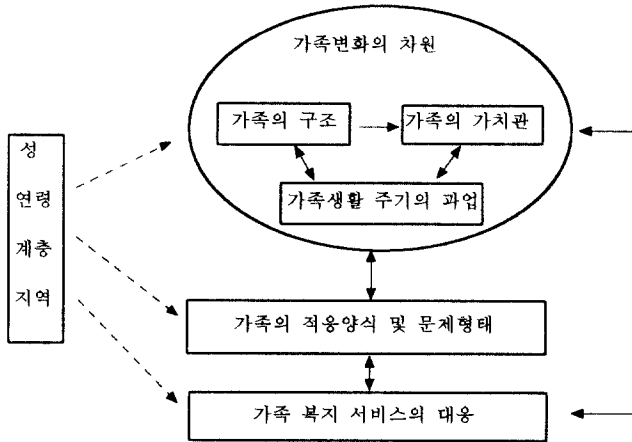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족복지서비스의 노력들을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요구와의 상응면에서 통합적으로 재조망해 보는 것은 의의있다. 이는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나 앞으로의 정책 및 서비스적 개선방향에 중점을 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을 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추이로 파악하여 지금까지 한국 가족복지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개입방안들을 가족관계적 차원에서 추출하여 그 발전과정을 평가한 연후에 미래의 가족복지서비스의 방향모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논의는 가족의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족학자 森岡清美(もりおかすみ)는 가족문제의 연구접근중 문제가족적 관점과 일반가족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森岡清美, 1975: 342-344). 전자의 관점은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것으로 가족이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의 형태, 특정문제의 원인, 문제의 전개과정, 문제의 진단과 조정 등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가족이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시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은 가족생활에 문제가 잠재해 있는 가족과 문제가 나타난 가족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여

8) 노인, 아동, 부녀자, 장애인의 분류에 따른 대상별 주요 가족복지서비스의 개별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문헌의 도표적 설명을 참조할 것. 변용찬, 가족복지서비스 기증강화,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보고, 1995, 8, pp.6-7.

가지 않음으로써 가족연구는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한 일반가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가족문제를 기본적으로 가치판단의 기준에서보다 사실판단에서 객관적인인과 결과의 관계를 법칙적으로 인식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족복지서비스를 조망하려고 할 때 위의 두 관점 중 일반가족적 접근방법을 따르려고 한다. 이는 한국가족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일반가족 모두가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긴장의 경향성을 추출하여 나타나는 개인 및 가족의 문제의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일반가족적 접근을 해 온 가족문제 연구자 중 일본의 小山박사는 가족문제를 문제 자체보다 문제의 배경을 추적하여 일본의 현대가족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동태를 파악하였다. 그는 일본의 가족을 제도적 변혁, 의식면의 변화, 역할행동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의 순서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는 도식으로 설명하였다(森岡清美, 1975: 349-355). 이 도식에 따라 그는 가족문제를 제도와 의식간의 간격, 의식과 역할행동간의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小山박사의 도식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의 문제 및 복지서비스의 출현과정을 하나의 모형으로서 설정해 보고자하며 그 도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1 >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응 모형

그림 1의 모형은 앞서 고찰한 한국의 가족변화의 세 차원들-- 가족의 구조, 가치관, 가족주기의 역할수행--의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게 된 가족내 적응 및 문제의 양상

이 가족복지서비스의 요구와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는 역사적 추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가족문제의 양상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규범적 변혁으로 인한 가족생활 영역⁹⁾에서의 가족원들의 적응의 차이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이 가족문제 이해의 특징을 이룬다. 가족의 적응 결과는 성, 연령, 계층, 지역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문제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적응양식에 대한 전제는 가치관에서 뿐 아니라 가족구조와 가족내 주기에 따른 역할수행에서도 역사적으로 전수되어온 형태나 기능들을 일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과 주체성을 지니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모형을 가족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적응문제와 복지서비스에의 개입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즉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들이 가족사회적 변화의 세 요소(구조, 가치관, 가족주기내 과업)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표출되며 이에 가족복지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가 전개될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외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주요 측면으로 남녀 성관계에 기초한 부부관계와 세대간의 부모-자녀관계(학부모-자녀,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들 수 있다(조홍식 외 4인, 1997: 39).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의 특성에 근거해 볼 때 고부간 혹은 친족간의 관계에 의한 가족 문제도 간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부간 및 친족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미성년 자녀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문제중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가족문제에 관여하는 가족관계의 양상으로 친족의 범위도 포함시키는 특성을 갖게 된다.

가족관계내의 문제들의 현상적 이해를 위해서 가족복지서비스 현장의 상담통계들이 분석, 기술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자료는 가정상담소와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이다. 1970년 이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해온 서울시 가정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를 제외하고는 가족문제상담에서 '가족문제'라고 한정하고 서비스를 실시해 온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유일한 곳이라는 점과 다루는 문제의 영역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근대화 이후 한국가족문제의 양상을 추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적 원조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상담을 주로 하여 왔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의 문제 분석에 유용하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 가정상담소에서 가족문제를 세분화하고 연도에 따라 상담의

9) 생활주체적 집단으로서의 현대가족의 이해는 김만두교수의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응책"을 참조할 것.

요청문제별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설립이래 1998년 은퇴할 때 까지 가정상담소에서 헌신해 온 김효남씨와의 인터뷰(1999년 3월16일)는 이하의 연구에서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표3 > 가정불화의 연도별 추세 (각 연도별 순위별작성으로 100%가 안되는 경우 있음)

연도 순위	ã70-75	ã76-80	ã81-85	ã86-90	ã91-95	ã96	ã97	ã98
1	부정 35.4	부정 27.5	부정 23.5	부정 23.5	부정 22.1	부정 19.8	부정 20.8	부정 21.4
2	유기, 별거 16.6	고부갈등 친족관계 계 11.3	자녀문제 15.7	고부갈등 친족관계 13.9	주벽, 폭행 학대 계 16.3	고부갈등 6.3 친족관계 10.3 계 16.3	친족관계1 10.8 고부갈등 5.7	가정폭력 15.7
3	성격차 14.1	주벽, 폭행 학대 계 11.0	성격차 14.4	성격차 13.2	고부갈등 7.4 친족갈등 8.1 계 15.5	성격차 16.6	성격차 15.9	성격차 14.9
4	고부갈등 친족관계 계 8.9	가출 10.1	고부갈등 친족관계 10.7	자녀문제 13.0	성격차 15.4	자녀문제 13.9	폭행, 학대 11.4	친족갈등 9.8 고부갈등 4.7
5	주벽, 폭행, 학대 계 6.8	성격차 9.0 경제적 무능력8.5	가출 처가출 남편가출 계9.7	폭행, 학대 8.0	자녀문제 11.9	폭행, 학대 11.0	자녀문제 10.9	자녀문제 10.1
6	가출 3.3	유기, 별거 6.4	폭행, 학대 8.0	가출 처가출 남편가출 계 6.4	가출 처가출3.8 남편가출 2.7 계6.5	도박, 주벽 7.6	처가출5.1 남편가출 2.5 계6.5	도박, 주벽 6.9
7	가치관차 2.1	정신건강 5.5	정신건강 3.6	정신건강 5.0	성불만 2.8	처가출3.9 남편가출 2.5 계 7.6	도박, 주벽 7.4	가출 남편가출 2.1 처가출4.4 계 6.5
8	신체장애 2.0 성불만 2.0	가치관차 4.1	무능력 3.0	가치관차 3.9	정신건강 2.7	정신건강 3.1	정신건강 3.6	정신건강 3.1
9	도박 0.6	신체장애 2.9	유기, 별거 2.9	도박, 주벽 3.8	가치관차 2.3	무능력, 남비 2.1	무능력, 남비 2.0	무능력, 남비 2.8
10	정신건강 0.3	도박 1.6	도박 2.5	유기, 별거 3.1 성불만 2.5	유기, 별거 2.0	성불만 1.5	유기, 별거 1.4 성문제 1.4	유기, 별거 1.9 성문제1.5 가치관차 0.6

1. 고부 및 친족관계와 가족복지서비스

1) 고부 및 친족관계의 문제양식과 사회적 변화

위의 <표3>에서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자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고부관계의 갈등은 70년에서 98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2위 또는 4위의 가정불화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랑의 전화(1993)와 한국여성개발원(1991)이 조사한 가족문제의 성향 분류에서도 부부문제와 자녀문제 다음으로 상담의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부관계가 아들(남편)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로 혈연(부모-자녀의 관계)이나 사랑(부부관계)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며, 생활환경, 관습, 세대등의 차이등 많은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고부갈등의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상의 빈도 이면에서의 고부관계 문제의 현상이나 내용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며느리가 피상담원이었으나 이 시기의 후반부부터는 점차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변화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다(김효남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 16일). 이는 고부관계의 고질적인 갈등관계의 적응방식이 전통사회에서는 윗세대인 시어머니의 방식에 며느리가 따르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시어머니 우세형'에서 '며느리 우세형'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기숙, 1985; 윤유경, 1986). 따라서 가족문제의 실제 내용상의 차이의 규명을 위해서 가족의 적응행동들은 사회적 변화(구조와 기능, 가치관, 가족주기내의 역할)와의 관련성 하에 어떻게 관계의 특성이 변모되었는 지의 역사적 과정이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부관계의 갈등이 시대의 변화에도 계속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역동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가족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 우세하나 기능상에서 여전히 확대가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통계청(1992)의 자료에 따라 3세대 가족이 전국의 12.2%를 구성하나 여성개발원(1991)의 조사결과 17%이상이 고부관계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부부가 분가하여 사는 경우도 가족관계의 고부관계의 갈등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조홍식 외, 1997: 43)¹⁰⁾.

그럼에도 고부관계의 특성은 근대화의 영향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즉 근대화에

10) 이를 서구모형의 문제 가족적 접근에서는 밀착형의 가족형태, 또는 정서적 미분리로 해석될 수 있다(Minuchin, 1974; 송성자, 1995).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한국사회의 발전배경에 초점을 두어 갈등 내용상의 변모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의 연장자로서의 시어머니의 위치를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혈연과 귀속주의로부터 업적과 보편주의를 이상으로 여기는 도시산업사회로의 전환은 가족성원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대가를 기대하는 소위 교환이론적 사회관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최신덕, 1982; 1985; 윤유경, 1986; Sussman, 1976).¹¹⁾

교환관계면에서 전형적인 직계가족, 친자 중심제도에서 생활해 온 시어머니 혹은 노인들의 경우 자녀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적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여 빠른 사회의 변화에의 적응이 어려우며 동시에 전통적 권위주의적 의식으로 현실적인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등의 요인들은 가족내 노인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따라서 현대 한국가족에서의 고부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권력자원이 감소되는 현상과 젊은 세대들의 교환적 사고방식의 증가등으로 인한 노인부모와 자녀간의 권력관계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욱이 가족주기상의 변화에서 지적했듯이 노년기의 확장으로 갈등의 문제상황을 보다 오랜동안 경험하게 되며 현 노인부모의 세대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 온 세대로서 자신의 노후준비를 독자적으로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호혜적 교환관계가 자신의 세대를 중심으로 단절되어 세대적으로 공평하게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세대간의 교환관계의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변화한 세월에 대한 배신감,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문소정, 1995: 350).

한편 약화된 시어머니(혹은 시부모)의 영향력과 대조적으로, 1989년에 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법 개정¹²⁾은 친족관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가족문제의 개입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상승된 여성의 지위향상에 발맞추어 출가한 딸이 자신의 친정어머니의 지원세력으로 시어머니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 가족상담의 현장에서 출가한 딸이 고부갈등 혹은 노인과 성인자녀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피상담자로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문제해결에 중요한 영향

11)현대사회에서 노인이 타인 및 사회와 맺는 관계에 교환이론의 논리를 적용시킬 때 노인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권력자원을 소유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경제 체일주의적 가치가 팽배한 때에 은퇴와 신체적 생산성의 저하등으로 권력자원이 감소된 노인들은 가족을 장으로 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유리하지 못하게 된다. 가족을 혈연으로 묶어진 운명적인 집단으로 생각하여 노인이 된 부모에게 운명적인 부양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같이 생활함으로써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와 손해인가를 계산하는 젊은 세대의 자녀의 가치는 교환관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12)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처의 부모 및 배우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계 모계 모두 8촌 이내, 혼인 후 늘어나는 범위로 시가, 처가 쪽 모두 4촌으로 조정되었다.

력을 미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효남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16일). 이렇게 출가한 딸이 친족권력으로서 개입하는 새로운 고부갈등의 문제 및 해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출가’한 딸의 친정문제의 개입이라는 어휘 자체가 남성위주의 가족관을 전제한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고부관계의 문제발생후 한정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적 관여가 아니라 노인과의 동거형태에서도 직계가족의 부계 혹은 부거제가 아닌 모계 혹은 모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정 부모와 경제적, 정서적 부양 혹은 지지를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미루어 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부계 중심에서 점차 모계 쪽으로도 확대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세대와의 접촉이 시가와 처가 모두와 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양계제의 성격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 및 친족관계의 문제가 예상된다. 가정상담소의 표에서도 고부갈등은 줄어들어 가고 친족관계의 문제가 90년대에 와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현대 산업사회의 고부관계는 전통적인 고부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며 변화되고 있다. 고부관계의 갈등의 상황을 앞서 지적했듯이 전통사회의 효 이데올로기로부터 교환이론에 근거한 권력관계로의 전환에 의한 것으로 받아 들일 때, 교환관계내의 권력자원에 따라 다양한 고부관계의 양상이 나타난다. 즉 시어머니의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 예컨대 사회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및 건강, 주관적 태도 등에 따라 고부관계의 문제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윤유경, 1986).¹³⁾

가족복지서비스에서는 가족마다 다양한 권력관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고부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가족의 역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권력관계의 현상인식에서부터 더 나아가 원만한 고부관계와 만족한 노인부양을 통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권력관계의 조정의 측면에서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옹호자(advoc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세대간의 불균형적인 교환관계를 앞으로 ‘효’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개인의 가족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신화는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개

13)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줄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시어머니는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시어머니는 가장 기본적인 부양마저 걱정해야 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윤유경, 1986: 80).

척해야 하는 현대의 경쟁산업사회에서 자녀에게 부모부양이 이중의 부담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가족이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적 대책과 서비스를 제공해 줌이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올 해 시행된 국민복지연금도 미래의 가족에서의 노년기에 대한 대비라는 면에서 고무적인 시도로 보이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조나 면세조치 등을 확대 실시할 때 가족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이외 노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정서관계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변화하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기대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조절하며 갈등을 해소시킬 통로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도 변화된 남녀 평등적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변형된 형태의 양계제에 따라 가족관계로 인한 문제의 영역이나 특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즉 변모된 노부모와의 가족 거주 양식, 경제적 부양이나 정서적 유대 등에 따라 고부관계 뿐 아니라 친정 노부모와 자녀관계 등과의 갈등도 예상될 수 있으며 친족관계의 개입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부양의무의 양식이나 형태 등에 관한 고정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가족 복지의 현실에 누가 개입하고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 그리고 가족문제 해결에 어떠한 자원이 가능한지등 보다 현상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서 문제사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일 예로 과거와 달리 친족을 통한 지원망을 새롭게 규정하고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친족에 의한 완충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시부모-며느리 관계 이외에도 처부모-사위관계, 조부모-손자녀 관계, 혼인후의 형제관계 등의 개개 가족이 처한 친족관계망에 의거한 다양한 관계의 조합속에서의 조정은 가족의 총체적 복지를 위한 가족역동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2. 부부관계와 가족복지서비스

1) 부부관계의 문제양식과 사회적 변화

현대가족은 산업사회의 비인간적인 영향력들로 부터 가족원을 보호하는 정서적 충족을 그 주요역할로 규정짓는다. 부부관계도 가족 내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해진 여성이 갖는 기능적 역할에 바탕을 두기 보다¹⁴⁾ 애정적 동반자로서의 남녀간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므로써 이른바 '낭만적' 사랑이 가족의 원천으로 중요해 진 것이다

14)과거의 결혼의 목적이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모성역할의 수행이 가족존립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신수진, 1998: 87-88). 따라서 부부관계의 정서적, 성적 유대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부부간의 애정적 기대수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긴장과 불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1966년부터 1996년도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 결과, 이혼문제와 부부관계의 문제가 계속하여 가정문제의 각각 1, 2위를 차지하여 왔다. 여기서 부부관계의 문제란 결혼생활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지만 불화가 계속되어 항상 갈등상태에 있는 부부문제를 의미한다. 아래의 표 4는 1975년부터 1996년까지의 약 20년간의 추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 표 4 > 가족 면접 상담의 시간내용에 따른 연도별 추이

연도 가족문제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6년
이 혼	2,034명 (33.1%)	3,870명 (33.2%)	4,767명 (40.2%)	4,545명 (46.0%)	4,006명 (47.3%)	4,462명 (54.5%)
부부관계	1,245명 (20.1%)	2,726명 (23.3%)	2,662명 (22.5%)	1,820명 (18.4%)	2,240명 (26.4%)	1,842명 (22.4%)
전 체	6,022명 (100%)	11,680명 (100%)	11,851명 (100%)	9,873명 (100%)	8,469명 (100%)	8,191명 (100%)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주: 표의 전체의 연도별 추이에서 1990년도 부터의 감소추세는 상대적인 것으로 면접상담이외의 다른 형태의 상담의 형태가 급증한 이유에서 연유된 것이다. 법률상담소에서 다른 총 상담건수는 훨씬 증가되었고 특히 1995년부터는 국내 27개 지부의 설립으로 더욱 급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0년에는 전화상담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1985년의 730건에 비한 1990년의 2,099건은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1995년부터는 출장상담의 형태로 서울시정 정보센터에서 가정문제 및 주택에 관한 문제상담을 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12,428명(총 상담중 54.1%)에 이르렀다.

위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부부관계의 문제는 연도의 변화에 큰 관계없이 가족 문제의 약 20%를 계속하여 차지하였고, 이혼 상담은 전체의 면접상담을 차지하는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근래의 이혼율의 급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해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더욱이 이혼연령이 위의 통계자료들(1990년도, 1995년도, 1996년도)에 따르면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고 40대가 그 다음의 주를 이룬다. 이는 가족주기상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이혼문제는 부부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가족 전체의 위기인 것이다.

이혼이 급증하는 배후에는 남녀평등의 관계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의 여러 요

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의한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와 사회진출 및 경제력 소유, 이와 함께 의학과 기술의 혁신으로 출산의 조절 및 가사노동의 간소화 등은 전통적인 가족윤리--자녀출산과 부모자녀관계에 가족의 중요성--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여성 개인의 삶의 질과 평등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실현하도록 이끌었다.

한편 이러한 이혼 급증 현상에 대한 사회적 변화의 토대 위에서 이혼 당사자들의 이혼사유에 대한 해석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한국가족이 부부관계에서 처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시사할 것이다. 아래의 표 3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조사한 근래의 이혼사유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내용을 남녀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 표 5 > 이혼사유에 대한 남녀별 우선순위

	1985년	1990년	1995년	1996년
남	기타의 사유 (45.0%)	기타의 사유 (43.4%)	기타의 사유 (29.8%)	기타의 사유 (49.8%)
	유기 (36.3%)	유기 (40.0%)	유기 (27.9%)	유기 (23.9%)
	부정 (12.5%)	부정 (8.2%)	부정 (22.4%)	부정 (12.9%)
여	기타의 사유 (35.2%)	폭력 (38.5%)	기타의 사유 (44.3%)	폭력 (36.2%)
	폭력 (32.8%)	기타의 사유 (34.9%)	폭력 (28.1%)	기타의 사유 (35.2%)
	부정 (23.0%)	부정 (18.3%)	부정 (17.3%)	부정 (18.5%)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주: 이혼사유는 법에서 분류한 1-6호의 내용에 따른 것이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3년이상 생사가 분명치 않음의 두 항목을 등이 나머지의 분류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의 사유는 부정, 폭력, 유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받음, 가출 등을 제외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

이혼의 사유들에서 남자의 경우 연도에 상관없이 같은 순위를 보이며 그 중 기타의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다. 여자의 경우 기타의 사유와 배우자의 폭력이 일차적인 이혼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유기가, 여자의 경우 폭력이 각각 이혼 사유가 되는 차이점은 한국의 부부관계에서의 남녀의 행동양식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가족 내 폭력을 행사하며 부인은 유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남편에 대응하는 부부갈등의 반응양상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 심각한 이혼의 사유가 되는 폭력의 심각성은 많은 문헌들이 지적하고 있다(김재엽, 1997; 변화순 외,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앞에서 서울시 가정상

담소의 가정불화의 원인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듯이 가족내의 폭력은 1970년 이래 계속하여 5위 안의 가족문제로 상담되어오다 1998년에는 두번째로 빈번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족내 폭력은 위에서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행동 대응방식을 언급했듯이 한국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가정내의 폭력과 부부의 권력유형을 부부의 갈등관계의 상황에 적용해 본 조사결과, 가정폭력은 평등주의적 부부관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남성지배적인 남성우위 부부유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김재엽, 1997). 이는 가부장적 가정문화에서의 폭력의 위험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한국 가정의 위계질서에서 남편은 역할 규범의 통제자로서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통적인 부부불평등의 관계가 폭력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이혼현상에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혼의 사유중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빈번히 나타난 이러한 현상에서 이혼의 원인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탄에 이른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기타의 사유에서도 남녀별 지적하는 내용이 상이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1995년에 남자는 성격차이(15.5%), 정신질환(13.7%)을, 여자는 언어폭력(20.8%), 무능과 불성실(15.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남자의 경우 아내에게 정서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여자의 경우 폭력의 심각성과 사회,경제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의 경우에도 남자는 거짓말(19.1%), 대화단절(11.5%), 성격차이(11.5%)의 순서들이 기타의 사유를 구성하는 반면 여자들은 특별히 경제력을(14.4%)로 가장 많이 지적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부관계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가족해체의 현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정은 부부관계의 배타적 성관계라는 혼인의 전제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다. 위의 자료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요 이혼의 사유가 되며, 이는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가정불화의 제 1위의 문제요소로서 1970년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부정의 양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김효남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 16일). 즉 이른바 배우자의 부정이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볼 때 1970-75년 사이에는 피상담자가 여자이며 남

편의 부정을 호소하며 남편의 유기와 별거는 가정밖에서 다른 여자와의 동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 이후 점차 여자의 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76-80년경에는 사회적 상황이 가족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준 시기로 중동의 근로자 파견이라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라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의 격리기간 동안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며 부정행위를 하다가 상대남자에게 협박당하며 가출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때 남편은 자녀를 동반하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는 자녀가 아내의 부정행위의 증인이라고 피상담자인 남편은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여자의 부정이 증가되다 1990년경 성의 자유화의 바람으로 중년여자의 부정이 증가된다. 그 이외에 이혼시 과거에는 여성에게 자녀의 양육권이 없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자녀양육의 거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유기, 별거로 인한 가출의 증가현상에서도 자녀를 포기하는 경향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현상들이다.

2)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 속에서 현대의 부부는 가족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혼돈과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문제들은 부부 사이의 가족에 대한 개념, 부부 각각이 기대하는 남녀간의 역할인식등에서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복지서비스에서는 가족이 감당하여야 할 많은 기능들--정서적 및 성적 유대, 자녀의 사회화, 가정단위의 소비경제등--의 원천적 자원이 부부의 상호의존에 기반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고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서 남자들이 피상담자로서 증가되어 아내를 상담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남자들이 중년의 위기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전의 부부상담에서의 장벽이었던 남자들의 상담에의 참여의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현장에서 최근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소나 복지관에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접근들,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 기법과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더욱 client의 요구에 맞는 가족치료 및 부부 훈련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피상담자들의 태도의 변천과정에서 증명되고 있다(김효남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 16일).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상담 경험을 추이해 볼 때 70년대에는 상담을 매우 꺼리고 비밀 상담을 원했으며 첫 상담시에는 외적 현상에 대한 자문(예로 법률상담)으로 시작하다 그 후 상담을 받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피상담자가 직접 문제를 제시하여 상담이 시작되고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90년대 부터는 피상담자가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추세로 이혼상담의 경우에 자신이 현실적인 법적 절차만을 구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지 등의 요구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자신이 상담을 주도하기 보다 피상담자 중심에서(client-oriented) 그들의 문제 해결을 꾀하는 개입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자기결정권의 실천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한편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결과 뿌리깊게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부부폭력에 대하여서 1998년 7월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¹⁵⁾의 실행은 가족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시사성을 나타낸다.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구체적 상담실적에서도 1998년 두 번째로 많은 가족문제로 가족폭력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폭력현상에 대한 의식의 변화(법으로서 범죄임을 지정하며 시정이 요구되는 가정의 현상이라는 인식)로 해석될 수 있다(김효남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 16일). 즉 가족문제 해결의 차원은 법적 보호의 장치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판사가 구타 남편에게 수감 명령,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완비됨에 따라 구타 남편의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적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인숙, 1998: 61). 앞으로 법적 개입과 함께 구타 남편을 교정, 변화시켜 나갈 시설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리잡음으로써 가족 폭력의 예방과 치료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이 부부관계 및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대부분 남자 가장에게 의존하게 된다. 남자가장의 실직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역할 변화로 인한 부부갈등과 가족 불화(김재갑 외, 1998)를 야기시킴으로써 가족전체는 사회, 심리적 위기를 맞게 된다. 사랑의 전화 상담통계자

15)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가해자 교정을 위해 보호 처분을 내린다(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1998).

료(1998)에 의하면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주벽, 폭행, 학대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한편 그동안 남편을 가정의 경제 공급자로만 생각한다든지 과거로부터의 정서적 갈등이 경제적 위기와 함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결과 별거나 이혼이라는 가족해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직자를 비롯한 가족의 지지 서비스가 복지적 측면에서 절실하다. 사랑의 전화 사회복지관이 서울역 일대에서 1998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직 노숙자들에게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구직 정보나 숙식 제공보다 가족문제로 상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노숙자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심리상담 결과, 1998). 실직자들의 두드러진 문제 중심으로 집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예를들어 실직후 심한 알콜 중독 문제의 집단, 가정내 폭력 문제를 가진 집단) 혹은 실직하의 배우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상담등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심리사회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보겠다(김유순·이영분, 1998).

3.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복지서비스

1) 부모 자녀관계의 문제양식과 사회적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제도들의 기능대체 현상과 아울러 가족의 존재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정서적 기능과 함께 자녀 사회화의 기능수행은 아직도 고유하고 효율적인 가족존립의 의의로 남아 있다. 가족 주기의 분류기준도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설명되듯 가족 내 부모-자녀의 양육의 역할은 가족의 발달과업으로서 중요하며 앞서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표 1에서도 자녀문제는 1980년 이래 5위 내의 가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불화의 주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부모-자녀간의 기능상의 역할 수행의 방식을 변형시킨다. 현대의 핵가족은 자녀에 대한 사회화, 정서적 지원, 보호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을 가족내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며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내 부모관계에서 긴장이 증가되고 권력관계가 치우쳐 있을 때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이혼, 별거, 유기등의 현대의 가족의 해체현상은 미혼모 가족,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족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을 야기시키며 이러한 가족형태의 가족이 기존의 양친 가족과 다른 기능 수행의 방식들은 역할 혼돈, 역할 갈등, 역할

과다현상들을 초래하여 부모-자녀간(전통적인 가족의 용어를 빌어)의 관계들은 불안정하기 쉽다. 더욱이 친족과 이웃의 지원이 축소된 현대의 지지체계내에서 위의 새로운 가족형태들은 역할 수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특성이 변화되면서 관계의 속성도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의 남존여비에 기초하여 아들은 혈통에 의해 가계를 잇고 부모의 노후의 생활보장을 책임지던 관습은 지역적 이동성이 심한 현대사회적 여러 여건하에서 어려워지며 노후의 생활보장은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면에 있어서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 국가의 노후 보장제도와 동년령기의 사회관계 속에서 해결하며 생활하여 가는 추세이다. 근래에는 부모의 책임을 완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의 주기를 완결하는 생활경험을 하는 부모 자신의 인격성장과 완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 있어 부모를 위한 자녀의 가치는 전근대적 사회에서와 같이 노동력 제공이나 노후생활보장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서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를 통한 경험의 심화와 능력의 발휘에 있는 것이다(이효재, 1983: 279-280). 자녀를 통한 부모 자신의 인격 성숙이라는 횡적차원의 강조의 기초는 민주적 부모-자녀관계를 추구한다.¹⁶⁾ 가족내 민주적 대인관계양식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의 태도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족 내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행동등이 표출될 때 자녀의 편에서 부모의 이혼을 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김효남 씨와의 인터뷰, 1999년 3월 16일). 또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평가의 한 측면으로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와 부모간의 지각성향을 비교해 본 결과,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방임에 대하여 부모보다 더 학대의 개념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채혜정, 1993: 54-59).

나아가 민주적 가족내에서 자녀들의 자유와 독립에 기초한 사고나 행동양식은 때로는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더욱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크다. 부모의 양육의 책임이 부여하는 권위는 자녀의 입장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의 교육기관의 전문화 경향은 부모 이외에 새로운 권위자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부모의 권위를 제한시킨다. 특히 핵가족하에서 결속망이 소수에게 한정되며 감정적 관계가 부모 자녀에게 집중될 때 상반된 요구로 인한 갈등은 첨예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대간의 연결 끈이 절실히 요망된다.

16) 현대에 와서 아버지편의 민주적 추세로서 부성역할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한 역할이 권위적이며 억압적이기보다 개방적이며 온정적으로 변화되었다.

2)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현대에 와서 가족주기내에서의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자녀확대완료가 길어졌다. 이에 관한 역사적 배경으로서 국가의 가족계획사업의 관여는 자녀출산과 자녀의 수를 자연적인 운명에 맡기기 보다, 부모들이 선택하고 계획하므로써 부모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효재, 1983: 39).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 가족의 사적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가 소수 자녀화로 인한 가족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자녀들의 인권과 생활복지라는 측면에 인구정책으로서 관여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의 유대가 인권존중과 인간적 사랑으로 강화되기보다 경제적 합리성이나 이해타산으로 흐르기 쉬워 가족관계가 비인간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인구조절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이외에 현대에 이르러 국가가 가정 내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기능은 더 이상 개별 가족이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내용과 정보가 다양해지고 교육기간이 장기화되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보호와 책임아래 그들의 복지가 좌우되고 있으니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보호으로부터 국가는 인권의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에 관여하는 추세이다. 그 중 자녀에 대한 그릇된 친권행사 즉 자녀학대의 경우 더 이상 가족내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로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미성년자의 1차적 환경인 가족과 국가의 보호 실현의 매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 예방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부모상, 양육관, 아동발달의 정보 등에 관한 부모교육과 의식개혁이 가족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의 기능수행 능력면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현대의 핵가족은 변화하는 사회내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 역할수행에 많은 긴장과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출, 비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족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가족을 강화하는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를 통하여 가족에 잠재된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을 용이하게 돕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개별 문제접근의 실효성이 증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기능에 대해 가족복지서비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위 '부모역할훈련'은 가족내 중요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부모-자녀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나라의 부모역할 훈련은 80년대 이후¹⁷⁾ 부각된 것으로 70년대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에 의한 가족내의 경제적인 안정위에서 자녀의 양육에 현실적인 관심으로서 비롯되었다. 방송, 신문(동아일보, 1989. 5; 조선일보, 1989. 5) 등의 매체를 통하여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의 강조는 90년대에 와서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수입을 계기로 확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많은 복지관에서도 부모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 현장에서 직접 가족생활의 부모-자녀관계에 관여하는 부모역할훈련은 앞으로 개별가족의 요구에의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한 대상 프로그램의 다양화, 아버지의 참여방안 모색과 활성화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성의 확충¹⁸⁾ 등이 서비스의 개선책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산업화의 과정은 각 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복합성하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화 이후 한국가족은 가족의 구조, 가치관, 가족주기 내의 역할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족 문제로 의뢰된 사례의 분석을 통한 가족문제 유형의 변화를 한국의 가족관계의 역동적 모습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가족 복지 서비스의 방향과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은 산업화 과정내에서의 한국 가족의 변모에 따른 한국 가족복지의 토착화 작업의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문제에 대한 병리적 이해와 치료라는 입장과 달리 한국의 가족문제를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가족에게 요구되는 적응의 양식이라고 파악하는 일반가족적 견해를 따라 가족복지 서비스가 산업화로 인한 생활변화에 개별 가족들의 나름의 적응양식 혹은 문제의 해결방식을 돕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복지의 과제를 산업화라는 총체적 환경의 변화

17)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는 현대적 부모역할 훈련으로는 한국 최초로 1982년부터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 빈곤층 가정의 어머니, 특수아동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18)현재 복지관에서 주로 심리상담연구소의 외부강사에 의존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가 대인 관계, 인간행동의 이해, 집단 역동,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에 관한 기본적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고 몇 가지의 기법만을 전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에 대응하는 한국 개별가족의 능동적 생활양식의 실현으로 파악한 하나의 생태학적 생활모델로서, 가족 복지적 개입에서도 가족구성원들을 현존하는 가족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생활환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가족환경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목표, 인간과 환경간의 적합성(fitnes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의 추구하고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가족복지 서비스의 실천현장에서 다루어져 온 가족관계내의 가족문제들이 산업화로 인한 한국의 가족의 구조, 가치관, 생활영역에서의 역할수행 방식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세 차원의 가족관계의 적응양식(고부 및 친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은 가족복지서비스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문제의 현실을 이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사해 준다.

가족관계의 변화 중 고부관계는 전통적 직계가족 사회의 효 이데올로기로부터 현대산업사회의 교환이론적 인간관계로의 변모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의 세대간 권력관계 이동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부관계의 양상의 변화에 있어 친족의 개입 특히 혼인한 딸의 친정에의 관여는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법 개정의 배경하에서 가족내 문제해결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아울러 노인부양의 체계가 양계제 혹은 양거제의 성격으로 가속화되는 현 추세에서 노인과 성인부부자녀 사이에 개별가족의 속성에 따른 상이한 친족관계망이 형성되고 문제와 적응양식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부관계의 갈등 혹은 세대적 호환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가족복지적 접근은 개별가족 성원들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 개념의 합의로부터 출발하여 부양에의 의무와 기대의 가치가 현실적인 충족으로 이어지도록 조절하며 중재할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국가의 가족부양에의 관여나 친족관계망의 완충효과의 실현 등의 개입방안의 모색을 포함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부부의 애정적 기능의 강화와 현대적 남녀평등의 가치관이 강조되며 이혼의 증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불만족현상으로서 이혼의 사유 분석을 통하여 현대 부부관계의 갈등의 문제영역을 규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한 형태중 배우자 폭력은 가부장적 가정문화의 표출로서 권위적 불평등의 부부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회적 산물로 이해된다. 부정의 양상의 변모는 성의 자유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여성의 경제력이 동인이 되어 정조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나타내 주며 남자 내담자의 증가도 달라진 양상이다. 그리고 이혼이나 유기, 별거시 자녀 양육을 기

피하는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욕구의 배후에는 산업 사회의 성역할 분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IMF로 증폭되고 있다. 이상의 부부관계의 여러 문제들은 부부관계 강화훈련, 구타 남편과 배우자의 치료방안, 실직자 가족의 지지서비스등 그들의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되며 피상담자의 자기결정적 문제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양육의 차원이 인간관계의 심화로 변환됨으로써 부모역할의 수행방식에서 전통사회의 위계적 관계에 익숙한 부모와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자녀와의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한 핵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구성은 자녀의 사회화와 양육의 기능과 관련된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킨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합한 부모역할 훈련 모형에 기초한 양육기능 수행방식의 강화와 미성년자의 1차적 환경으로서의 가족 보존을 위한 서비스등이 제시되고 있다.

위의 가족관계의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강조될 것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비스보다 가족을 통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인식함이 전제가 된다는 점이며 일상의 생활위기에 접해있는 가족에게 보존과 성장에의 잠재력이 있음을 깨우치는 동기부여(empowering)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가족환경의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의 권력이나 능력의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옹호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강조하여, 한국의 현대가족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많은 긴장과 갈등속에서 가족이 담당하여야 할 사회적 기능 및 가족 자체내의 생활기능수행을 하기에 내외적 자원의 한정으로 소진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대책은 주로 가족의 경제적 측면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가족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복지서비스적 접근은 아직도 부분적이며 미약하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위기의 현상들을 예측하며 가족 문제의 발생에 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가족 복지서비스의 전문가의 교육 및 훈련, 보편적인 가족의 요구를 수렴할 전문 상담 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체계의 구축, 가족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가족복지법의 설립등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 방안들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세권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동 (외) 1985, 「한국사회 한 세대」, 서울대 출판부, 7.
- 김규원, 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 김유순, 이영분 (1998),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대처기능 향상을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제 2호.
- 김은희 (1994),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5.
- 김양희 (1993), “가족복지정책”,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
- 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불황기의 실업 스트레스 변화과정: 사례연구」, LG 커뮤니카노피아 연구소.
- 김재엽 (1997), “부부권력구조와 갈등,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창간호.
- 김태현, 박숙자 (1992), “한국의 비동거 가족 연구: 지방과 해외근무자의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4.
- 김혜란, 장경섭, (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 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II)」,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 보고.
- 문소정 (1995),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 가족분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박혜인 (1985), “한국 농촌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과학논집, 12.
- 변용찬 (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II)」,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 보고.
-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 유영주 (1984),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유경 (1986), “한국의 고부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숙 (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인 (1984), “한국도시사회의 가족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재 (1983),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조혜정 (1985), “한국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인류학회 17, 집문당
- 조홍식 외 3인 (1997), 「가족복지학」, 학지사.
- 채혜정 (1993), “아동 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여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재 (1997),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최신덕 (1982),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 최재석 (1976), 조선시대의 신분계급과 가족형태, 고대 인문논집, 21집.
- 최흥기 (1995), "현대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사회론, 사회비평사.
- 한겨레신문 (1998. 6. 22), "노숙자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심리상담 결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1985), "노인과 가족생활", 노인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森岡清美 (1975), 日本の家族研究における家族問題, " [現代日本の家族], 家族問題研究會, 東京 培風館,
- Duvall, E. M. (1971), *Family Development*, Loppincott.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 Sussman, M. B. (1976),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Handbook of Aging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Song Hankyu (1978), "Family Changes in Modernizing Korea", Ph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 C.

Family Social Service's Coping to the Changes in Korean Families

Lee, Young Boon/Yang, Sim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ver how family social service has been coping with the needs for social welfare arisen by changes in Korean families over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Korea using data collected in the field and to search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The Response Model of Family Social Service presented in this study used an ordinary-family approach not a troubled-family approach with a basis on the assumptions that the type and extent of conflicts and tension in families experience during industrialization process affect the adaptation manner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his study includes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Korean family life cycle. It also includes observing how the intra-family adaptation and conflicts problems arisen from the interaction of the above-mentioned 3 factors have been reflected in the relationships existing inside the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parents and children and with relatives. Comments and evaluation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involvement led by family social service and also included.

This study, an ecological life model of family social service, helps social workers thoroughly understand environments families exposed to and go between the environments and individuals. It also reminds us of our mission to minimize the victims of power conflicts surrounding the family.